

4차산업혁명 마중물 메이커문화 확산

도, 27~28일 창업워크 메이커 페스티벌 개최

전북도와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는 도내 청년층을 대상으로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할 창의적 인재 육성과 더 나은 미래를 위한 가치 있는 창조활동인 메이커 문화를 확산시켜 나가고 있다.

19일 전북도에 따르면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이하 창조센터)는 이달 27~28일 전북시제품제작에서 청년들의 창의적 만들기를 통해 과학과 기술을 쉽게 이해하고 체험할 수 있는 메이커 행사이자 참여 융합형 축전인 '창업워크 메이커 페스티벌'을 개최한다.

'메이커'는 특정분야에 국한되지 않고 상상력과 창의력을 바탕으로 스스로 제품이나 서비스를 구상하고

개발하는 창조활동을 하는 사람들을 지칭하는 용어다.

올해 첫 번째 시도되는 창업워크 메이커 페스티벌은 전북경제통상진흥원, 창업선도대학, 한국전통문화의전당, 전북문화콘텐츠산업진흥원, 3D프린팅산업협회, 전북시제품제작운영기관협의회 등 외부기관이 대거 참여한다.

이번 메이커 확산 행사에는 '메이커스(DIY) 경진대회'와 메이커 문화 활동시연, 전시체험부스, 이벤트존, 메이커 마켓, 창업상담 등 흥미와 체험위주의 '메이커스 박람회'로 나뉘어 진행된다.

도내 우수 메이커 발굴과 사업화 지원을 위해 마련한 '메이커스(DIY)

경진대회'는 예선을 통과한 15개 팀을 대상으로 7개 팀을 선정해 총 2천만원의 사업화 자금을 지원한다.

'메이커스 박람회'에서는 메이커 문화 활동시연을 통해 우수 메이커 작품인 자작 자동차, 오토마타 나비 숲의 메이커 작품을 전시하고, 스타돌, 파발리온 만들기 등의 퍼포먼스를 시연한다.

특히, 전북시제품제작소, 완주군 무한상상실, 한국전통문화의전당에서는 기관들이 갖고 있는 기술 특성을 활용해 DIY 및 체험부스를 운영해 체험자가 직접 제작한 제품들은 기념품으로 가져갈 수 있는 체험부스와 전기 자전거 등 선진 메이커 자작작품 체험관도 함께 운영된다.

창조센터는 이번행사를 통해 새로운 형태의 메이커 문화에 대한 이해 폭을 넓히고, 이런 메이커 문화 확산

이 전북지역의 건전한 창업으로 연계되는 계기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도 유희숙 경제산업국장은 "이번 행사는 참여자들이 무엇인가 자기 손으로 만들 수 있다는 즐거움을 느끼고, 협업과 공유의 가치를 배우는 행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4차 산업혁명으로 1인 제조기업 시대가 다가와 메이커의 혁신역량과 도전정신이 핵심주체로 떠오르고 있다"며 "자생적인 메이커 운동이 활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북도는 지역에서 활동하는 역량 있는 메이커를 지속적으로 발굴 지원하기 위한 '메이커 모임 지원'과 '메이커 창작활동 지원' 등 메이커 분야 확산에 필요한 프로그램들을 개발해 운영할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김진성 기자



"이 상품 매우 좋아보입니다" 19일 전주월드컵경기장에서 '제15회 전주국제발효식품엑스포'가 열린 가운데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송하진 도지사를 비롯한 초청 인사들이 해외기업관을 둘러보며 상품을 살펴보이고 있다.

전북도, SNS대상 6년연속 수상 '소통의 아이콘' 부상

전국 지자체 유일 기록

페이스북 팬 17만명 육박

유익한 정보 전달 호평

전북도가 '대한민국 SNS대상' 제정 이래 6년 연속 수상에 성공했다. 이는 전국 243개 광역·기초 지자체 중 유일한 기록이다.

도는 19일 서울 중구 LW 컨벤션센터에서 (사)한국소셜콘텐츠진흥협회와 해럴드경제가 주최한 '2017 대한민국 SNS 대상'에서 광역지자체 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이로써 도는 2012년 광역지자체 부문 최우수상, 2013~2014년 공공부문 종합대상, 2015년 광역지자체 부문 최우수상, 2016년 광역지자체 부문 대상에 이어 올해까지 '6년 연속' 수상이라는 쾌거를 이뤘다.

'대한민국 SNS 대상'에서 6년 연속 수상 한 지자체는 전국 243개 광역·기초 지자체 중 전북도가 유일하다. SNS대상은 블로그,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등의 운영 내용을 종합 평가해 기업과 공공기관의 경쟁력 확보에 기여하고 지속적인 개선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 제정됐다.

미래창조과학부 산하 (사)한국소셜콘텐츠진흥협회는 올 7월부터 9월까

지 정량평가와 전문가 및 내부 기관 평가, 사용자 평가를 종합해 수상기관을 선정했다. 도는 2009년 블로그 운영을 시작으로 2010년 트위터와 페이스북, 2015년에는 카카오톡과 인스타그램 운영을 시작했다.

페이스북 팬수는 16만6,000명을 돌파하는 등 전국 지자체의 '블로그'이 되었으며, 블로그 역시 누적방문자 750만 명을 기록하며 전국 블로그 가운데 상위 0.1%(블로그차트 기준) 수준의 최우수블로그로 평가받고 있다.

전북도 SNS는 공공기관 계층이라는 틀을 벗어나 SNS 이용자들의 문화와 언어로 소통하고, 도정·여행·축제·문화 등 다양한 정보를 친근하고

재미있게 전달해 호평을 받고 있다.

특히 올해는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와 2023세계잡비 대회에 새만금 유치 소식을 '라이브 방송'으로 전달하는 등 신속한 정보제공으로 사용자의 만족도를 높였다.

도정 백치석 홍보기획과장은 "소셜 미디어는 각 채널 이용자들의 연령과 콘텐츠 소비 행태가 다른 만큼, 블로그, 페이스북, 카카오톡, 인스타그램의 유기적 활용이 중요하다"면서, "앞으로도 정책고객과 소셜 미디어 이용자 입장에서 콘텐츠를 제작하여 전라북도의 다양한 매력을 널리 알려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진성 기자

도의회 농경위 현지의정활동 분주

농어촌종합지원센터 방문 점검

농어촌종합지원센터 방문 점검

전북도의회 농업경제위원회(위원장 이학수)는 생생마을 만들기, 귀농귀촌, 농촌유학과 농어촌 관광 활성화 등을 통해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 확대 및 농어촌 지역의 공동체 강화 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전라북도농어촌종합지원센터를 19일 방문, 현지의정활동을 펼쳤다.

농어촌종합지원센터는 2016년 제336회 9월 임시회시전북도 마을만들기 지원 조례, 전북도 농어촌 체험관광 활성화 지원 조례와 전북도 귀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

설치 운영하고 있는 '전북도 마을만들기 협력센터', '농촌관광 지원센터', '귀농귀촌 지원센터'를 통합해 '전북도농어촌종합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는 조례를 마련, 혁신도시에 설립됐다.

이학수 위원장은 "전북도에서 시작되어 전국적으로 확산된 마을만들기 사업의 본래 취지가 퇴색되지 않도록 마을 상품의 안정적 판매와 다각화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김현철 의원은 "로컬푸드 제품에 안전성 문제가 발생할 경우 소비자 신뢰도가 급격히 추락할 수 있으므로 로컬푸드의 안전성 확보와 품질 제고를 위해 각별히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진성 기자

"지역특색살린 생태관광지 조성 힘써야"

도의회 환복위, 임실·장수 현장 방문...성공적 마무리 당부

전북도의회 환경복지위원회(위원장 최훈열)는 19일 현지 의정활동의 일환으로 임실·장수 생태관광 조성 현장을 방문했다.

이날 현장방문은 지난해부터 전북도와 각 시·군이 추진하고 있는 생태관광지 조성사업의 진행상황과 애로사항을 도의회가 직접 점검하는 차원에서, 임실군 성수산 '왕의 숲'과 장수군 '탄봉샘 예코파크' 조성지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생태관광 조성사업은 전라북도의 우수한 생태자원을 현명하게 이용하고 체류형 관광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2016년부터 2024년까지 9개

년 동안 936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도내 각 시·군마다 대표 생태관광지를 육성하는 사업이다.

환경복지위원들은 사업 진행상황과 향후 지역 생태자원 컨셉에 맞는 기반시설 구축 계획에 대한 설명을 듣고,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한 주민참여 및 생생마을 조성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생태관광지 조성 현장을 둘러본 환경복지위원회 최훈열 위원장은 "각 시·군에서는 지역의 특색을 최대한 살릴 수 있는 생태관광지 조성에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김진성 기자

먹구름 낀 한국지엠, 해뜰날 올까

군산시·전북도, 도민에 군산공장 경영정상화 동참 당부

전북도와 군산시는 한국지엠 군산공장이 현재의 위기를 극복하고 향토기업으로 존립할 수 있도록 공직자들을 비롯한 모든 전북도민의 힘을 합치기로 해 관심을 끌고 있다.

이는 한국지엠 군산공장이 내수판매 극감과 철수설 등의 악재를 딛고 지역의 경제발전을 위해 한국지엠 군산공장 돕기에 전북도민이 나선 것으로 군산공장 경영정상화에 적지 않은 도움이 기대되고 있다.

시에 따르면 전북도와 시 관계자들이 한국지엠 군산공장 현장방문을 통해 도출한 군산공장 발전방안을 19일 시정 경제발전국장 주재 기자회견을 열어 주요 언론인들에

알리고 이에 대한 협조를 구했다. 기자회견을 통해 군산시는 지역경제의 큰 버팀목인 한국지엠 군산공장의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신뢰 회복을 통한 내수판매 확대가 절실함을 강조하고, 이에 전북도와 합심하여 '내고장상품 애용운동'의 일환으로 지역차 구입에 행정기관이 먼저 나서기로 하는 등 발전방안을 밝혔다.

또한 전북도는 도를 비롯해 12개 시군이 군산공장 현장학습 및 견학을 추진하도록 지원하고 직원은 물론 도청 및 혁신도시 입주 국가기관에 관용차 구입시 지역차를 구입하도록 요청하기로 했으며, 차량취?등록세의 한시적 감면조치를 위한 조례변경 등 실질적인 지원내용을 검토했다.

아울러 시에서는 노사민정 상생협

의체를 구성하고 유관기관 및 시민사회단체 등 전 시민을 대상으로 한국지엠과의 상생을 통한 동반성장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도록 캠페인을 지속 개최하여 전방위적인 홍보에 앞장선다는 입장이다.

김형철 경제발전국장은 "지역경기가 어려울수록 지역 내 소비가 촉진되어야 한다"며 "향토기업의 성장이 전북도의 성장과 연결된다는 생각으로 지엠차는 물론, 지역생산물에도 큰 관심을 가져줄 것"을 호소하고 군산시민은 물론 전북도민들도 한국지엠차량 등 지역 생산품 우선 구매에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군산=김판근 기자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www.ijmaeil.com**